



## “좌고우면 NO” 제주SK 2연승으로 끝낸다

3일 승강PO 수원삼성전

1차전 1-0 ‘무실점 승리’

7일 2차전 제주 홈 경기

비기기만 해도 1부 잔류

수원성을 합락시킨 제주SK FC가 K리그1 승강 플레이오프를 2연승으로 끝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시즌 최종전에서 자동 강등의 치욕에서 벗어난 제주SK는 지난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열린 K리그 2 위 수원삼성과의 K리그1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1-0 승리로 장식하며 K리그1 잔류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승강 플레이오프 승리는 1·2차전 합산 점수로 결정되는데 제주는 오는 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K리그1 잔류를 확정짓게 된다.

제주는 1차전에서 수원삼성의 역공에 밀려 전반에만 8개의 슈팅과 4개의 유효슈팅을 허용한 반면 슈팅을 1개 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반공에 시달렸다.

후반 시작과 함께 김준하 대신



3일 수원삼성과의 승강 PO에서 선제골을 넣고 환호하는 제주 유리 조나탄.

투입된 유인수가 후반 14분 상대 골키퍼 김민준과의 1대1 과정에서 결정적인 PK를 얻어냈고 유리 조나탄이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이자 결승골로 이어졌다.

제주는 원정 1차전 승리 후 열리는 마지막 홈 경기인 만큼 헤아한 공격을 선보이며 2연승으로 올해 부진했던 기억을 깨끗이 씻어내겠다는 각오다.

제주는 올해 유난히 홈에서 강했

다. 올 시즌 10승 중 6승을 홈에서 거뒀고 승점 39 중 57%인 22점을 홈에서 확보했다.

게다가 시즌 마지막 울산전에서 1-0 승리를 거두고 이를만에 치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1-0으로 2

연승을 거둔 만큼 홈에서 완벽한 승리로 피날레를 장식하며 시즌을 끝내겠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피로도 누적이다. 1주일

사이에 3경기를 치르는 만큼 전방

에서 활약해줘야 할 유리 조나탄과 남태희 등이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김정수 감독대행은 1차전 경기 후 “2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승리 한계 고무적”이라면서도 “회복이 관건일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대행은 2차전에 대해 “우리가 잘하는 것을 살리고 볼 소유를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 홍명보 감독 “최상 시나리오 예측불가”

월드컵 조추첨으로 美 도착… 6일 오전 2시 진행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 참석을 위해 3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홍 감독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은 5일 정오(한국시간 6일 오전 2시)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열린다.

홍 감독은 한국 대표팀이 어떤 조에 속하고 같은 조에 어떤 팀을 만나면 최상의 시나리오인지 등을 묻자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한국이 가장 피하고 싶은 팀을

꼽아달라는 요청에도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지금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인 한국은 이번 조추첨을 앞두고 사상 처음 포트20에 배정됐다.

포트1부터 포트4까지 각 포트 당 12팀이 배정돼 있고, 각 포트에서 1팀이 추첨을 통해 12개 조에 각각 배정돼 조별리그를 치른다.

포트1에는 이번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FIFA 랭킹 1~9위 팀이 속해 있고, 포트2에는 한국을 비롯해 크로아티아(10위)부터 호주(26위)까지 이후 순위 팀이 들어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참석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홍명보(가운데) 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한국은 포트2의 강호들과 조별 리그에서는 한 조에 뮤이지 않게 돼 일단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다.

하지만, 포트3에 배정된 팀들도 실력이 만만치 않은 데다 포트4의 경우 아직 본선 진출이 확정되지

않은 6개팀이 유럽축구연맹(UEFA) 플레이오프(PO) 승자 4팀과 FIFA 대륙 간 PO 승자 2팀을 합쳐 배정되기 때문에 조 추첨 결과에 따라 ‘행운의 조’ 아니면 ‘죽음의 조’에 속해 조별리그를 치를지가 정해진다. 연합뉴스

###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 이예린 초등태권도대회 ‘2관왕’ 기염

한국초등연맹 4개 대회 석권

서귀포시스포츠클럽 이예린이 올해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전국대회 4개를 모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예린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전북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한국초등연맹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대회에서 우수선수 선발전과 최강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이예린은 올해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대회 4개 모두를 석권하며 여초중 학년부 플레이어 최강전 최고선수로 뽑혔다.

이와 함께 고지예(서귀포시스포츠클럽)도 우수선수 선발전과 최강전에서 잇따라 은메달을 획득하며 2025



고지예(왼쪽)와 이예린(오른쪽).

년 태권도 꿈나루 국가대표 벌탁 이후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스포츠클럽 허상우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또 한번 선수들의 재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 KIA 남는다

2+1년 45억원에 FA 도장

KIA 타이거즈의 ‘심장’ 이자 ‘프랜차이즈 스타’인 원순 투수 양현종(37)이 KIA와 인연을 이어간다.

프로야구 KIA는 4일 프랜차이즈 스타인 자유계약선수(FA) 양현종과 계약기간 2+1년, 계약금 10억원, 연봉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총액 45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구단을 통해 “언제나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기회를 준 구단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전은 끝나지 않았다”며 “유니폼을 벗는 순간까지 꾸준한 모습을 KIA 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심재학 KIA 단장은 “양현종은 KIA의 상징”이라며 “후배들을 이끌며 ‘살아있는 전설’로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광주동성고를 졸업하고 2007년 KIA에 입단한 양현종은 미국프로 야구에 진출한 2021시즌을 제외하고 18시즌 동안 한 팀에서 꾸준히 활약을 펼쳤다.

KBO리그 통산 543경기에 등판해 2666.2이닝, 186승 127패 9홀드 평균자책점 3.90의 성적을 거뒀다. 2025시즌엔 30경기에서 153이닝을 책임지면서 7승 9패 평균자책점 5.06을 기록했다.

양현종은 KBO 최다승(210승), 최다 이닝(3003이닝·이상 송진우) 경신 도전을 KIA에서 이어간다. KBO 역대 탈삼진 1위(2185개) 기록도 KIA에서 계속 쌓아간다. KIA는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상장성이 큰 양현종과 계약을 맺듬지면서 한숨을 들리게 됐다.

양현종은 KIA와 세 번째 FA 계약을 맺었다. 그는 2016년 12월, KIA와 계약기간 1년, 총액 22억 5000만원에 도장 찍었고, 미국으로 돌아온 2021년 12월 계약기간 4년, 총 103억원에 FA 계약했다. 연합뉴스

###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